


인류를 위한 바티 커의 식탁

미국 미술 잡지 <아트 앤 옥션>이 선정한 '미래의 소장 가치 있는 작가 50인'에 뽑힌 이후 가장 급속도로 작품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인도계 영국 작가 바티 커 Bharti Kher. 철학자 같은 그녀를 성스러운 만찬 테이블을 두고 마주했다. 길에서 주워 온 성모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 붓다, 브라흐마·비슈누·시바 등 힌두교 신들의 조각상들, 동물과 사람 조형물을 한데 모아 식탁에 올린 그녀의 설치 작품.

그녀는 풍요로운 세상에서도 빈곤을 느끼는 현실, 점점 날 선 사회가 되어가는 부조리한 세상을 한 끼의 식사처럼 가볍게 식탁 위에 올려두고 싶었다고 말한다. "자세히 보세요. 신, 인간, 동물은 그저 식탁에 올려놓은 낡은 오브제일 뿐, 그 어떤 것도 위대하거나 천박한 것이 없죠. 그저 당신의 눈높이에 맞춰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은 모두 평등하고,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해주죠." 그녀는 테이블 뒤로 가서 한번 감상해보라 조언한다.

바티 커는 인도 여성의 빈디(미간 사이에 붙이는 장신구), 사리(인도 여성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여기는 레이스 의상) 같은 독특한 소재뿐 아니라 미신이나 신화 같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오늘을 탐구하는 작가다. 또 다른 대표작인 수백 번 반복적인 작업으로 완성한, 다양한 컬러의 빈디가 얹히고 설치되면서 완성된 우아한 수공예적인 회화 작품을 보고 있노라면 살아 있는 세포를 보듯 경이로움을 느끼게 된다. 빈디가 '세 번째 눈'이란 의미라는 말을 들으니 어느새 작품이 기호적인 암호처럼 여겨지고, 구하고 싶은 해답이나 이상적인 풍경을 손에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빈디나 사리 등은 인도 뉴델리에 살면서(현재는 영국을 떠나 인도에 머물고 있다)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유용한 소재일 뿐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출근하고 돌아오는 일상의 반복적인 행위를 공예적으로 아름답게 기록하는 거예요. 제 작품은 인도뿐 아니라 한국, 일본, 중국 어디에서나 겪는 오늘을 이야기할 뿐이죠."

바티 커는 온 인류의 관찰자이자 기록자다. 그러니 시간이 흘러도 메마르지 않는 이야깃거리와 더 치열한 작업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신화는 시대와 국경을 넘어 인간의 원초적 욕망, 사고방식 등을 담고 있다. 상징과 은유, 상상력을 동원한 그녀의 작품은 신화를 읽는 듯해 수세기가 지난 후에도 들여다볼 가치가 있을 것 같다. 그녀의 조언대로 테이블 뒤로 서본다. 이렇게 현실에서 물러나 객관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자신이 서 있던 자리를 다시 들여다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글 계안나 기자 | 사진 이경옥 기자

* 국제갤러리는 10월 5일까지 인도계 영국인인 세계적인 작가 바티 커의 개인전 <Anomalies>(기형)를 개최한다. 옛이야기 속에서 모티브를 얻은 그녀의 작품은 성, 권력, 사랑, 신체, 그리고 기괴함에 대한 기존 관념을 모두 뒤흔들어버린다.

Bharti Kher

